

미국인 56% “대학 졸업장 가치 없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장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이 평생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데 비용만큼 효용이 있다'란 문장에 동의한 비율은 42%, '빛만 떠안고 쓸모 있는 직업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은 가치가 없다'에 동의한 이는 56%였다

대학교육에 대한 미국인의 회의론은 2013년 40%에서 2017년에는 47%,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반대로 가치가 있다는 긍정론은 2013년 53%에서 2017년 49%, 올해에는 42%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8~34세로 응답자의 63%가 대학은 쓸



▲ 미국인 4,500만 명이 지고 있는 학자금 빚이 1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사진=shutterstock

모없다고 했다. 아울러 남성, 공화당 지지자, 시골 거주자들이 대학이 무익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35세에서 49세 사이에선 회의론이 가장 낮은 52%를 기록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의 회의론은 58%, 65세 이상에선 55%를 보였다

대학 회의론이 이처럼 높은 비율을 나타낸 원인으로는 대학의 정치 편향성 확대 및 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꼽혔다. 또, 급등하는 대학 등록금도 대학 외면을 초래한 이유로 지목됐다. 전문학적인 대학 등록금이 대학의 가성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4년제 대학 교육이 가치가 없다고 밝힌 회의론은 남성이 58%, 여성이 56%로 엇비슷했다

대학 등록율도 하락했다. WSJ에 따르면 대학 등록율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나 하락했다. 대학 진학률도 하락하는 추세다. 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이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2021년 62%로, 역대 최고였던 2009년 70%에서 급감해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인 4,500만 명이 지고 있는 학자금 빚은 무려 1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4년제 대학의 졸업률, 학사학위 취득율은 60%에 그쳐 대학 진학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명문대 합격 위한 액티비티, 무엇부터?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GPA)이다. 즉 GPA가 합격자 평균 아래라면 합격하기 힘들다.

액티비티는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 몇몇 주립대학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은 액티비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최상위권 사립대학들의 경우 당락이 액티비티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 입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원 학생 대부분이 최고 수준의 GPA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비학업적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액티비티란 무엇이며 어떤 것을 해야 하나?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은 보통 액티비티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본다. 첫 번째가 Extracurricula Activity, 두 번째가 Community Service, 세 번째가 Talent/Ability, 그리고 마지막이 Character & Personal Quality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은 Extracurricula Activity다. 한국식으로 보면 클럽 활동(서클활동)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의 클럽활동이다. 학교마다 많은 서클들이 있다. 액티비티의 시

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무런 클럽에도 가입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너무 많은 서클에 가입을 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액티비티는 학교 서클 활동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학교 서클 활동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던 Community Service, Talent/Ability, Character & Personal Quality 등의 활동도 필요하다. 이는 서클 활동에서 확장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다. 미국 대학들은 액티비티를 볼

때 학교 클럽이나 서클 활동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몇 개 서클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 보통 2~3개, 많아야도 3~4개를 넘지 않는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 활동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학업 등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서클은 학교내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내 서클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서클에 가입을 해 활동을 할 수 있다. 관심이 끌리는 활동을 골라 참여하는 것이 좋다. 활동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앞서 설명한 카테고리에 연관되는 활동을 하면 확장성에서 좋을 수 있다.

축 가베 전문 학원

기다리던 가베 전문 학원! 창의가베·수학가베에 도전하세요.

Froebel Gifts 1837 : 3D Math & 수학가베



Forms of Reality



Forms of Knowledge



Forms of Life

"Children can learn from objects to pictures, pictures to symbols, symbols to ideas-leading the ladder of knowledge".

Froebel Gifts

창의가베 2yr~4yr

“재미있는 창의가베 같이해요”



“더 높고 깊고 넓은 매쓰”

지금부터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매쓰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썸머스페셜 프로그램
★ 병아리 부화 클래스 ★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름 알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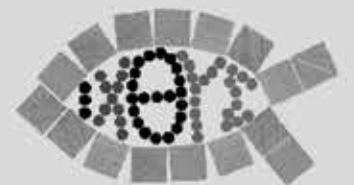
가베클럽
실용매쓰, 3D Math

3D ACTS

Froebel Gifts

창의가베 2yr - 4yr

수학가베 K - 6th



562.512.0111

7453 La Palma Ave Buena Park CA 90620



La Palma Ave

Western

Knoll's Berry Farm